

광주·전남 시·도민 지방선거 6차 여론조사

광주일보·KBC·한국갤럽

광주시장 박광태:김재균 48:26 전남지사 박준영:서범석 60:16

<민주당 후보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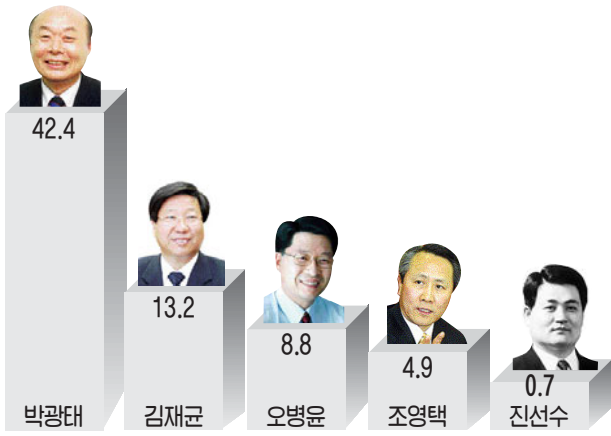
<우리당 예비후보>

<민주당 후보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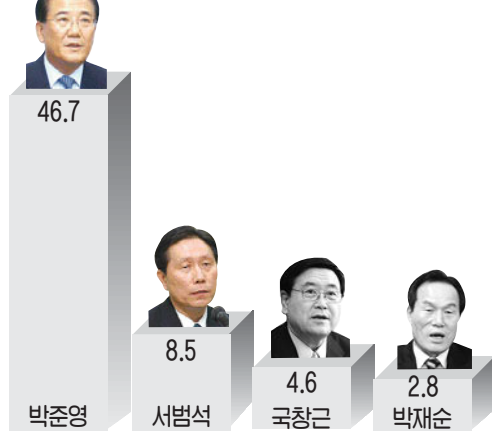
<우리당 후보>

광주일보와 KBC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한달 반 남기고 지역 민들의 변화하는 표심을 알아보고 지방정치발전과 투표 참여를 이끌기 위해 주민 정치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.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(Gallup Korea)에 의뢰해 실시된 이 여론조사는 지난해 11월과 12월, 올 1월, 2월, 3월에 이어 여섯번째다. 또 지방선거 직전에 한 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다. 조사결과를 부문별로 살펴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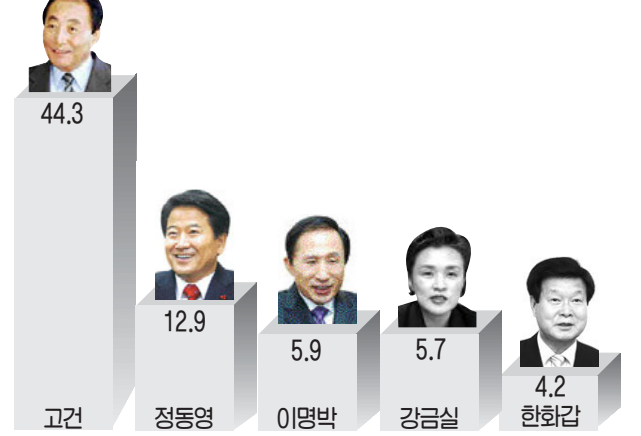
■광주시장 선호 인물 (단위:%)



■전남도지사 선호 인물 (단위:%)



■차기 대통령 선호 인물 - 상위 5위 (단위:%)



■광주시장 후보 선호도

◇전체 후보 선호도 =민주당 박광태 광주시장이 2위와 격차를 30% 포인트 내외로 유지하며 선두를 지켰다. 박 시장의 선호도는 42.4%로 전 달 45.4%에 비해 소폭 떨어졌다. 경선이 불발됨에 따라 민주당 후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. 2위인 열린우리당 소속의 김재균 전 북구청장의 지지도도 13.2%로 전 달 14.7%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.

당 소속으로 처음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진선수 전 부대변인은 0.7%의 지지율을 기록했다.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지난 3월 여론조사에 포함됐던 후보 중 전갑길 전 국회의원이 광산구청장 출마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, 이정현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출마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시장 후보에서 제외됐다. ◇유력 후보 가상대결 = 지난번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박광태 광주시장은 열린우리당 후보로 누가 나와도 여유있게 승리하는 것으로 예상됐다. 우선 김재균 전 북구청장(25.7%)과의 대결에서는 48.0%의 지지율로 앞섰고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(18.1%)과의 대결에서는 50.4% 지지율로 지지 격차를 더욱 벌렸다. 박 시장은 특

■전남지사 후보 선호도

◇전체 후보 선호도 =이번 달 여론조사에서 박 지사의 지지율은 46.7%를 기록했다. 전 달 조사보다 0.9포인트 상승한 것이고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여론조사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. 지난달 다른 당의 후보 정리로 지지율이 9.5%포인트나 오른 것에 비해 소폭 오른 것으로 지지율이 안정세에 들어간 것이라 분석된다. 지역별로 박 지사는 지난달과 비슷하게 장흥·영암(76.6%), 강진·완도(66.2%), 해남·진도(60.2%)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. 또 40-50대와 남성에서 선호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. 민주당이 17일 오후 박 지사를 후보로 최종 확

정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16-17일 실시된 같은 당 소속의 국창근 예비후보도 여론조사 후보로 포함됐다. 국 후보는 지난 달 16일 출마를 선언하며 0.3%의 지지율을 얻었으나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큰 폭의 지지율을 끌어 올리며 4.6%를 기록했다. 경선에서 승리, 열린우리당의 정식 후보로 확정된 서범석 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이번 조사에서 8.5%의 지지율을 얻었다. 지난달 첫 등장에 불구, 5.1%의 지지율을 얻었으나 이번에는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.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된 박재순 전 전남도 기획관리실장은 지난 달 2.7%와 비슷한 2.8%의 지지율을 얻었다. 지난 여론조사에서는 무응답층이 전 달보다 크게 26.5%였으나 이번 달 무응답층은 37.4%로 오히려 크게 늘었다. 특히 주승용 국회의원의

■차기 대선후보 선호도

고 건 44% '주춤' 정동영 12.9% '하락' 이명박 5.9% '내리막'

고건 전 국무총리의 지지도 1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. 이번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은 44.3%로 전 달 46.5%보다 2.2%포인트 낮아졌다. 지난 달 본사 여론조사 이래 처음으로 45%대를 넘었으나 한달 만에 다시 내려갔다.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12.9%의 지지율을 기록했다. 지난 달 3개월 연속 상승하며 14.9%를 기록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3.0% 포인트나 하락했다. 지지율이 하락 상태에 들어간 것인지는 다음달 결과를 봐야 한다는 것이 조사 전문가들의 평가다.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고건 선호도는 50%를 넘어선 상태며 열린우리당 지지층에서조차 고건 후보에 대한 선호도(35.2%)가 정동영(29.8%)보다 높았다. 한나라당의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는 이번 조사 지지율이 5.9%로 전 달에 비해 1.9% 포인트 떨어졌다. 지난 2월(10.1%)까지 4개월째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3월에 전 달에 비해 2.3%포인트 떨어진 7.8%의 지지율을 기록한 데 이어 두달째 내리막이다. 이는 지난해 11월(7.7%) 수준 보다도 낮아진 것이다. 황재 테니스 파문 등 계속되는 구설수가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. 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약진도 눈에 띄었다. 지난 달 3.6%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5.7%의 지지율로 2.1%포인트 상승했다. 한화갑 민주당 대표도 4.2%의 지지율로 전 달 3.8%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강 후보에 밀려 전체 5위에 머물렀다.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4.1%,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4.0%,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2.9%, 권영길 민주노동당 전 대표가 2.0%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. 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박광태, 2위보다 30%P 내외 앞서...부동의 선두 김재균 13%·오병운 9%·조영택 5%·진선수 0.7%

박준영, 전남 서남권 강세...무응답층 증가가 변수 서범석 젊은층서 인기...한나라 박재순 지지율 담보

는 36.2%)의 선호도를 얻었다. 김 전 청장의 경우 지난달 정동계 전 문광장관의 불출마 선언으로 6.5%에서 무려 8.2%포인트나 지지율이 올랐으나 이번 달에는 조 전 실장의 출마로 상승세가 꺾였다. 같은 당 조 전 실장의 선호도는 지난 달 3.9%에서 이번 달 4.9%로 조금 올랐다. 출마 선언후 보름이 지난 상태라 아직도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선거전문가들의 평가다.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노동당 오병운 후보의 상승세가 가장 눈에 띄었다. 오 후보는 지난 여론조사보다 4%포인트 상승한 8.8% 지지율을 얻었다. 지금까지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.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 36.6%의 비교적 높은 선호율을 얻었지만 지지층의 결집도를 고려하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이 선거전문가들의 분석이다. 한나라

히 투표 확실층 사이에서 김 전 청장을 54.2%대 29.1%로, 조 전 실장을 57.5%대 18.4%로 우위를 더욱 확고히 했다. 박 시장은 김 전 청장의 대결에서 성별, 연령별, 교육수준별, 직업별, 구별로 모두 살렸을 때 한 부문에서도 지지 않았다. 지난달 학생들 사이에서 38.5%대 44.9%로 김 전 청장에게 뒤진 것과는 변화된 결과다. 김 전 청장은 열린우리당 지지자 사이에서 45.3%대 36.3%,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 26.0%대 18.4%(오병운 43.0%)로 박 시장을 앞섰으나 텃밭인 북구에서 마저 28.1%대 41.7%로 박 시장이 뒤지는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. 조 전 실장은 열린우리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박 시장과 대결에서 36.7%대 42.0%로 지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모든 부문에서 뒤졌다.

정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16-17일 실시된 같은 당 소속의 국창근 예비후보도 여론조사 후보로 포함됐다. 국 후보는 지난 달 16일 출마를 선언하며 0.3%의 지지율을 얻었으나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큰 폭의 지지율을 끌어 올리며 4.6%를 기록했다. 경선에서 승리, 열린우리당의 정식 후보로 확정된 서범석 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이번 조사에서 8.5%의 지지율을 얻었다. 지난달 첫 등장에 불구, 5.1%의 지지율을 얻었으나 이번에는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.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된 박재순 전 전남도 기획관리실장은 지난 달 2.7%와 비슷한 2.8%의 지지율을 얻었다. 지난 여론조사에서는 무응답층이 전 달보다 크게 26.5%였으나 이번 달 무응답층은 37.4%로 오히려 크게 늘었다. 특히 주승용 국회의원의

포인트(64.3%대 15.8%) 보다는 폭이 줄었다. 특히 투표 의향 질문에 대해 '꼭 투표할 것이다'고 답한 투표 확실층에서는 박 지사가 63.1%의 지지율로 서 전 차관 지지율 14.9%로 지지 격차가 48.2% 포인트나 됐다. 단순 대결 지지 격차(44.2% 포인트)보다 더 큰 차이이다. 박 지사는 성별·연령별·교육수준별 부문 비교에서 모두 서 전 차관을 압도했다. 하지만 학생 부문에선 서 전 차관의 지지율이 48.6%인 반면 박 지사는 22.3%에 불과,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. 지역별로 박 지사는 강진·완도(85.4%대 12.5%), 장흥·영암(81.2%대 12.1%), 해남·진도(69.4%대 14.3%) 등 전남 서남권에서 서 전 차관을 크게 앞섰으나 순천(57.0%대 25.1%), 광양·구례(61.3%대 27.2%) 등 전남 동부권에서는 서 전 차관과 격차가 줄었다.

Advertisement for '시몬스침대' (Simons Bed) featuring various bed models and promotional text.

Advertisement for 'TOUCH' office furniture featuring various office chairs and desks.